'마음의 불' 뇌성벽력에도 끄떡 안해

관욕·연등 밝히는 이유

문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보면 아기 부처님께 관욕을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연등에 불을 밝히는 의미도 알고 싶어요.

답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데, 부처님께서는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합쳐서 항상 그 날이 그 날, 오늘이 오늘, 영원히 인연의 줄을 끊지 않고 오고 가심이 없이 항상 오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이 부처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형식으로 부처님 몸에 물을 끼얹어서 씻어 봐도 그것은 자기 몸을 닦느니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항시 자기를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모두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없다면 아예 없습니다. 요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잘 참작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모두 공심(共心)으로 사니까 공식(共食)으로 인연돼서 돌아간다고요. 공식은 우리가 평소에 들이고 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들이고 내는 것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각색으로 마음을 쓰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로 들이고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생으로 살더라도 공식으로 굴리고, 또는 공심으로 산다 하더라도 공식으로 인연이 되는 거고, 공체(共體)로 사니까 공식으로 드는 겁니다.

공식으로 들고나고 굴리는 데에 있는

> 나뭇가지·잎새 붙들고
> 늘어지지 말고
> 오직 자기 뿌리를
> 파고 드세요

것입니다. 둘로 보지말고 꼭 그렇게 하라 하는 뜻이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까닭에 네 몸을 깨끗이 씻으려면 내 몸을 씻어야 하느니라 했겠지마는 네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내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있는데 저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이냐 더러운 물이냐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옥수 같은 깨끗한 물인데, 그것도 깨끗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찰나찰나 바뀌니깐 말이에요. 금방 구정물이 들어올는지 금방 흙물이 될는지, 우리 살림살이가 금방 깨끗하다가도 금방 흙탕물이 되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파일이면 모두 등불을 켜고 가족들 이름을 써서 붙이고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데 내 마음의 불을 켜고, 마음의 향을 사르고 마음의 떡을 할 수 있다면, 마음의 꽃을 향기로써 공심으로서 공용으로서 공생으로서 공체로서 공식화하면서 돌아갈 수 있게끔 공양을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 공부는 우주 천하가 다 먹고도 되남는 공부며, 뇌성벽력이 치고 비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불은 영원하지마는 물질로 켜는 불은 바람만 불어도 금방 꺼지게 되고 타버립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금강과 같은 마음으로써 대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도리를 밝히고 사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바람이 치니까 등불이 다 꺼졌는데 한 여인의 불만 꺼지지 않고 밤새도록 켜져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마음의 불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습니다. 방편으로 켜 놓은 건 비바람이 치면 꺼지고 말지만 마음의 불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각 사찰에서도 아기 부처를 물로 씻습니다. 미래에 깨닫는다고 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란 말입니다. 생각이 문제라면 손짓을 안 해도 손짓이 저절로 닿고, 말을 안 해도 말이 저절로 닿고, 인연이 닿지 않아도 인연이 저절로 닿고 그래서 공덕이 되는 거죠.

예전에 산으로 다닐 때 얘기인데 그 날이 사월 초파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건너다보니 등들을 여기저기 켜 놓아서 붉게 비추고 있는데, 그걸 보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었어요.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느냐는 얘기예요. 저기의 거리와 여기의 거리가 어떠며 너와 나 거리가 어떠냐 이거죠. 그러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일체제불을 갖다 넣으니깐 내 중심은 꼼짝도 안 해요. 바로 내 꼬챙이 내가 끼니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 살아 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나 이외에 대신 불 켜 주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죠.

우리가 불 켜는 것만이 아니라 끄는 것도 켜는 것도 둘이 아니라구요. 만약에 촛불을 켰다가 끄게 되면 그 초는 남아 있듯이 끄고 켜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니게 항상 같이 돌아가게끔 돼야 되겠죠. 이 도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거같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복잡한 거 같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복잡하지 않아요, 생활이니까. 생활을 하는 데 찰나찰나 내가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야 되나 하는 것만 관하시면 되겠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대신 살아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부모자식지간이라 해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요, 모두 홀로 나예요.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옆의 사람을 돕지 자기가 아니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죠. 자기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자식들도 부모와 자식간에 밝게 불을 켜주려면 관해주라고 했습니다. 둘이 아니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관해 주면 거기까지도 마음의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불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오게 되면 육체는 저절로 따라 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잘되고 못되는 것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규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지만, 그 날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아닌 오늘이 영원한 오늘이면서 끈이 항상 어느 날짜라고 증명할 수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대사의 인연을 갖추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불을 방편으로 켜더라도 아주 정성스럽게, 돈이 없어서 정성금을 조금 냈어도 생각은 크게 할 수 있죠. 등은 요만해도 마음은 우주에 닿게끔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요

문 요즘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막상 그렇게 하려니 제 자신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무척이나 불안합니다. 그동안 제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공백기간이 있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구요. 모든 일에 너무 자신이 없어요. 스님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답 진짜 자기 뿌리,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기 뿌리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부처님 형상을 믿으라고 하는 건가요. 부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건가요, 허공을 믿으라고 하는 건가요.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모자라든지 잘하든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니까 바로 자기 뿌리를 믿고 거기에 다 놓으라는데도 불구하고 왜들 그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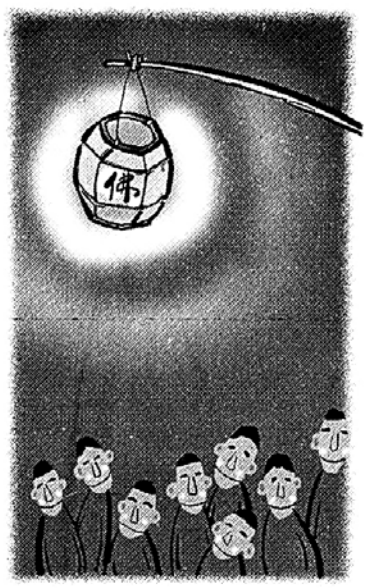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니다. 그러니까 가지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잎새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오직 자기의 뿌리를 파고 들라고 한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나무들을 볼 때 뿌리에 전체가 붙어 있는데, 싹이 잘못 생각을 한다면 뿌리가 썩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가지가 썩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나무들은 흙이 가렸기 때문에, 흙이 덮여서 자기 뿌리를 못 봅니다. 그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자기 뿌리를 못 보기 때문에 무명에 덮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찰나에 가려져 있고, 한 찰나에 밝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잎새 뿌리, 모든 것을 한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건 왜냐? 의식들이 자유자재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식들이 자재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어떠한 잘못하는 것을 보더라도 '내가 수억 겁을 거쳐올 때 어떠한 모습은 안 됐으며, 어떠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까, 몰랐을 때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둘이 아니게 생각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생각해야지, 뿌리를 얘기하는데 가지를 쥐고 애를 쓴다거나 이래서는 안됩니다. 뿌리라고 하면 한 뿌리에 가지 하나 잎새 하나까지 헤아릴 수가 없게 다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뿌리라는 것만 알면 가지는 저절로 알아지고 잎새도 저절로 알아집

게 걱정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체가 없다고 해도, 체가 없는 속에 의식들이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한마음으로 따라주기 때문에 생각을 잘 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직원들이 수천 수만이라 해도 어떠한 일이 생기면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의 한 생각에 직원들이 다 움죽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깐 모든 것이 다 회장님의 뜻으로 한번 결정을 해 놓는다면 모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지요. 그렇듯이 내가 한번 과감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거기에 믿고 놔야만이 결정적인 결재라 이겁니다. 결재를 해서 내려야 거기서 모두

무엇을 관해야 하나?

문 저는 지금까지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근본에서 맡긴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관하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을 해결하였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이 어느 정도 정리되니 제가 무엇을 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을 그대로 지켜봐야 하는 건,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건 제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위주로 관하는 것이 진짜 주인공 공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공중에 떠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크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진짜로 내 습을 타파하고 전체에 이익될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참선이라는 것은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누워 있으나 일을 하나 항시 내 깊은 마음속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살펴보고 관찰하는 겁니다. 나한테 놓고 지켜보고 관찰하는 데서 체험을 얻고, 작든지 크든지 체험을 하면서 가는 것이 참선이에요. 앉아서 좌선을 한다고 해서 참선도 아니요, 서서 한다고 해서 참선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앉아서 참선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따져서 하지말고 아무 시간이라도 무심으로 그대로, 내가 여유 있으면 아무 때라도, 또 여유가 없으면 서서라도, 일하면서도 관하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렇게 관할 때 어떠한 생각으로 앉아서 관합니까? 우리 몸뚱이, 한 혹성, 한 개체를 볼 때에 한 사람 앞에 중생들이, 수십 억 개의 중생들이 들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몸 속에 중생들이 수십 억 개의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부모에게, 어머니나 아버지, 정자 난자의 뜻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한데 합쳐지는 동시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이나 선업이 몸뚱이에 전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생산되면 악업이든 선업이든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악업인지 선업인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한테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하는 그것만 알지,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될는지 잘될는지 그것을 중생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내 줘야 그 중생들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거와 같고 거름 주는 거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 한마음이 수십 억 마리의 그 중생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는 데에 묘미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관할 때 어떻게 관해야 하나? 관할 때 제일 첫째, '내 주인공만이 참나를 발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최고의 관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는 내 가정에, 내 몸에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또 관해야 합니다. 항시 빼 놓지 말고 제일차적으로 '참나를 발견하게 해 주는 것은 나의 주인공뿐이다.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평소 때에는 항시, 일하다가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 급한 문제부터 관하시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당신만이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다!' 또는 어떠한 애고에 시달린다 하면 '그 애고가 있는 것도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법정에 소송이 걸렸을 때도 그렇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또 내 가정에서 남편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당신밖에 없다.' 자녀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도 당신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자식이라는 거하고 부모라는 거하고 바로 가설이 돼 있으니까, 모두가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우주간 법계가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마음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바로 내 주인공만이, 우주의 근본 자체가 모두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째,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앉아서 좌선을 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생각하는 데에 묘미가 있고 관찰력이 있고 바로 지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둘리가 터지는 겁니다. 사람이 오래도록 앉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마음을 쉬고, 아집이나 아상이나 내 교만이나 이런 거를 몽땅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버리지 않는 것만치 얻을 길이 없습니다. 죽어 가는

> 참선이라는 것
>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 누워 있으나 일을 하나
> 내 깊은 마음속에 모든 것
> 일임하고 살펴보고 관찰하는 것

사람이 권세나 돈이나, 부모 또는 자식, 처자 이런 게 아랑곳 있습니까? 모두가 아랑곳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좋다 하더라도 죽어 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동구 바깥에서 인사 한마디하면 업식만 그림자처럼 따라서 갈 뿐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방문 안에서 인사하고 고만 헤어집니다. 아무리 집이 좋다 하더라도 바로 집안에, 대문 안에서 인사하고 그만입니다. 부부지간,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벗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동구 바깥에서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업식은 따라 다닙니다. 또 다시 형성돼서 나올 때에 전부 부착이 돼서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벅적거리고 살면서 내 주장자의 주인이 없다면 바깥에서 자꾸 세균 같은 것도 끌어들이고, 유전성 같은 것도 끌어들이고, 영계성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그 애고를 못 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 딱 세우고 "주인공! 당신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어! 당신만이 바로 내 아픔도 건강하게 해서 이끌어 갈 수 있어! 당신 집 아니야? 당신 집이 썩는다면 당신마저도 설 곳이 없어!"하고 모든 걸, 이 모든 걸 한마음으로 통결시키고, 가는 거 잡지도 말고 오는 거 막지도 말고, 어떠한 분기가 일어나더라도 다 거기다 놓고 "분기가 일어나는 것도 당신한테서 일어나는 거니까 분기를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것도 당신 아니야?"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이런다면 몸의 병 증세가 없어지면서 모든 것이, 이 마음을 쉬면 모두 한마음으로 작용을 해 주니까 죽어가던 세포도 다 살아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공부예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공부는 해야 한다는 뜻을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기 뿌리 믿어야

주인공이 무엇입니까?

문 만물의 근본인 주인공은, 깨칠 근본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는 무기공에 빠졌거나 사마외도, 심지어 악귀가 된다 해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궁극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저희의 진정한 참모습인 것입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해도 이미 깨달음 자체인 완전한 궁극이 저희의 주인공입니까? 어리석은 중생에게 확고하게 자세한 길을 일러주십시오.

답 주인공이란 티끌 하나 빼놓지 않고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말입니다. 사람이 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생각을 하면 안에서 의식들이 하나로 돌아가고, 좋은 생각을 하면 그대로 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주인공에서 일어난 거니까 주인공에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어!' 하고 놓으라고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건히 믿고 누가 뭐래도,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한 철 살다가 가는 거, 한 철 살다가 우리가 가는 것이 걸망을 걸머지고 어디 놀러 가는 거나 같습니다. 딴 데서도 놀러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놉니다. 같이 놀다가 해가 지면 헤어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집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놀다 가는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모습이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놀다가는 사이에 벗어나서 아주 자유인이 되세요.

작용을 해주는데, 안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 하나 하나에는 우주간 법계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즉 말하자면 좋은 거는 들이고 나쁜 거는 내보내고 이렇게 우리 몸뚱이가 지구의 대기권과 같이 세포 하나 하나에서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다 채근합니다.

그러니깐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한번 해서 내리면 결재가 된 것과 같아서 두뇌로 통신이 돼 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전체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는 안에 대로 결정적으로 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안에서 모자라는 모든 걸 채워서 보급하고, 호르몬이 모자란다면 호르몬도 채워가면서 하는 거고, 또 바깥의 일들이

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한데 합쳐지는 동시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이나 선업이 몸뚱이에 전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생산되면 악업이든 선업이든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악업인지 선업인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한테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하는 그것만 알지,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될는지 잘될는지 그것을 중생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내 줘야 그 중생들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거와 같고 거름 주는 거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 한마음이 수십 억 마리의 그 중생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는 데에 묘미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관할 때 어떻게 관해야 하나? 관할 때 제일 첫째, '내 주인공만이 참나를